

5·18, 아시아 민주·인권운동 이끈다 … ‘광주 정신’ 전도사들

청·장년층 인권교육 민주화 초석 쌓기

⑤ ‘네팔 청년인권단체’ 바와나 바타씨

네팔 카트만두=이종행기자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된 나라로 꼽힙니다. 이는 ‘5·18 광주 민중항쟁’을 이끌어낸 광주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13일 네팔 카트만두의 ‘네팔 청년인권단체(Youth Action Nepal-YAN)’ 사무실에서 만난 바와나 바타(bhawana bhatah...·25)씨는 5·18 민중항쟁이 한국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군부독재의 ‘서슬’이 펴렸던 1980년 당시 광주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끊친 5월 항쟁이 없었다면 한국의 민주화도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었다는 게 바타씨의 주장이다.

바타씨는 지난해 ‘광주 아시아인권학교’를 수료한 뒤 YAN에서 네팔의 미래를 책임질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대학생 35명으로 구성된 YAN은 네팔 전역을 돌며 15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예비 사회인들에 대한



비와나 바타씨가 14일 ‘네팔 청년인권단체’ 사무실에서 지난해 자신이 주관한 청소년 인권학교 포스터를 가리키며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카스트제 폐해’ 알리고 권리찾기 앞장

“5·18 항쟁은 네팔 민주화운동 이정표”

야말로 시민들 모두가 뜻을 한데 모아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중의 승리’였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5·18 민중항쟁은 네팔 민주화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와 같다”며 “민주화가 어느 한 사람의 강요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힘을 합쳐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5월 항쟁 등의 과정을 거쳐 더 이상 군사쿠데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럽다”며 “네팔도 광주항쟁처럼 대중의 뜻을 한데 모아 민주화와 계급과파, 의무교육 등의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울러 그는 “네팔이 광주를 모델 삼아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한국이 단기간에 이룩한 경제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사회와 경제의 균형 발전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표시했다.

/golee@kwangju.co.kr

“군림하는 남성 이젠 필요없다”

네팔에 부는 ‘여성 인권운동’ 거센 바람

남성 중심사회인 네팔에 ‘여성인권운동’ 바람이 불고 있다. 남녀 및 신분차별, 가정폭력과 성폭행 등 차별대우와 억압에 시달리던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본격 뛰어든 것이다.

14일 네팔 여성인권단체인 ‘FEDO(Feminist Dalit Organization)’에 따르면 이날 현재 네팔에서 여성 인권신장을 기치로 삼아 활동 중인 단체는 25개에 이른다.

이들 단체는 주로 남녀 및 계급 평등에 대한 교육과 인식전환을 통해 여성의 인권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들은 네팔 전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권 및 평등 교육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여성단체는 또 인접국가로 팔려가는 여성들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 ‘FEDO’에 따르면 네팔에 여성인구 1천500만명 중 80%가 글을 읽지 못할 정도로 문맹

들이 인도 등 인접국가로 팔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이들 여성은 다시 네팔로 돌아오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노숙자로 전락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아울러 여성단체들은 여성들의 문맹퇴치와 가정 내 남녀평등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고 있다. 네팔은 여성인구 1천500만명 중 80%가 글을 읽지 못할 정도로 문맹

률이 심각한 상황이다.

‘FEDO’의 두르가 슘(Durga Soob...·43) 회장은 “최근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여성들의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치인이나 군인, 의사, 변호사, 언론인 등의 직업이 더 이상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의식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슘 회장은 또 “지난 2005년 광주에서 열린 ‘아시아인권학교’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새삼 깨우쳤다”며 “그동안 집안에만

갇혀있었던 네팔 여성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의 나리를 펼 수 있도록 여성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네팔 카트만두=이종행기자 golee@

kwangju.co.kr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편시설/월류 대표이사 010-7570-7525 아파트/빌라 양재월류장 010-3633-9011 주택/재개발 경매이사 010-5879-0005

소재지	대지/건물	길거리	층지구	비고
광주동	대396.간1308	524m	29억 미터	서구사무국
광현동	대81.간221	5·8층	3억7천	광주9내시
신현동	대12.간91	6층	4억9천	월류21세대
회동	대82.간147	4·8층	3억	원룸20세대
소공동	대82.간187	64·8층	29억 미터	월류21세대
월류동	대119.간321	8·9층	2억7천	8층+층 밸류
생활동	대12.간501	108층	13·10층	108층+층
노련동	대168.간203	5·7층	3억2천	주유소, 가든
운암동	대238.간755	25층+층	45억	8층+빌딩
월류동	대119.간1959	111층	82층	4층 신축동원
회현동	대190.간1820	65층	57층	4층 광교빌딩
오정동	대31.간59	4·9층	2억7천	2층 광장
운암동	대92.간236	79·8층	10층	금영프리미

주택사업/경매 대표이사 010-2811-5598

소재지	대지/건물	길거리	층지구	비고
신현동	대106.간243	11·6층	4억1천	5층+단지
월류동	대40.간267	4층	20억 미터	명지아파트
회동	대61.간122	4층	21·13층	1억3천
화정동	대182.간888	17층	3·9층	9층+단지
증평동	대12.간203	13층	5·8층	6층+단지
명동	대45.간159	2·9층	1·5층	5층+단지
월류동	대130.간442	13·5층	7·9층	5층+단지
명동	대174.간264	14·9층	5·9층	5층+단지
운암동	대410.간271	33층	18층	7층+단지
화정동	전동 57	3층	1층	1층상가
화정동	전동 24	1·9층	6·4층	2층상가
화정동	전동 15	2·8층	7·8층	8층상가
화정동	전동 12	1·9층	7·8층	8층상가

근편시설/월류 대표이사 010-2811-2817 경매/토지 대표이사 010-2011-5598

소재지	대지/건물	길거리	층지구	비고
신현동	대106.간243	11·6층	4억1천	5층+단지
월류동	대40.간267	4층	20억 미터	명지아파트
회동	대61.간122	4층	21·13층	1억3천
화정동	대182.간888	17층	3·9층	9층+단지
증평동	대12.간203	13층	5·8층	6층+단지
명동	대45.간159	2·9층	1·5층	5층+단지
월류동	대130.간442	13·5층	7·9층	5층+단지
명동	대174.간264	14·9층	5·9층	5층+단지
운암동	대410.간271	33층	18층	7층+단지
화정동	전동 57	3층	1층	1층상가
화정동	전동 24	1·9층	6·4층	2층상가
화정동	전동 15	2·8층	7·8층	8층상가
화정동	전동 12	1·9층	7·8층	8층상가

생활동/월류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지/건물	길거리	층지구	비고
신현동	대106.간243	11·6층	4억1천	5층+단지
월류동	대40.간267	4층	20억 미터	명지아파트
회동	대61.간122	4층	21·13층	1억3천
화정동	대182.간888	17층	3·9층	9층+단지
증평동	대12.간203	13층	5·8층	6층+단지
명동	대45.간159	2·9층	1·5층	5층+단지
월류동	대130.간442	13·5층	7·9층	5층+단지
명동	대174.간264	14·9층	5·9층	5층+단지
운암동	대410.간271	33층	18층	7층+단지
화정동	전동 57	3층	1층	1층상가
화정동	전동 24	1·9층	6·4층	2층상가
화정동	전동 15	2·8층	7·8층	8층상가
화정동	전동 12	1·9층	7·8층	8층상가

생활동/월류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지/건물	길거리	층지구	비고
신현동	대106.간243	11·6층	4억1천	5층+단지